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의 부적응 유아 행동변화에 대한 효과 연구

고희선¹⁾, 최은아²⁾

Application and assessment of a collaborative consulting program for maladjusted children

Hee-Seon Koh¹⁾, Eun-a Choi²⁾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적응 유아를 위한 지원을 위한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만 5세 부적응 유아 6명, 어머니 6명, 담임교사 6명이다. 본 프로그램은 부적응 유아에게 심리전문가가 교육기관 내 놀이실에서 심리지원프로그램을,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어머니가 가정에서 양육지원프로그램을 각각 주1회 총15회기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자기조절력, 사회적 능력, 문제행동,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실험 집단 6명, 통제집단 6명에게 사전사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응표본 t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적응 유아들은 자기조절력, 사회적 능력, 문제행동, 유아교육기관 적응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다.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양육적·교육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며 부적응 유아 지도를 위한 긍정적 대안이 됨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 부적응유아, 협력적 컨설팅, 중재프로그램, 유아교육기관 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velop and apply a collaborative consulting program for supporting maladjusted children. Six maladjusted 5-year-old children, six mothers, six homeroom teachers in the program, once a week for 15 sessions. The effects of the program were assessed by measuring self-control, social ability, problematic behaviors, and adjustment to child education facility of the experimental (n=6)

Received(October 12, 2018), Review Result(October 29, 2018)

Accepted(November 9, 2018), Published(December 31, 2018)

¹⁾(Assistant Professor) 51767 Dept.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nam Univ., 7 Kyungnamdaehak-ro, Masanhappo-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email: sena49@Kyungnam.ac.kr

²⁾(Assistant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49104 Dept. Child Welfare, Kosin Univ, Wachi-ro, Yeongdo-gu, Busan, Korea
email: cea007@daum.net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3049795)

and control groups (n=6) pre and post program administration, which were analyzed using a paired sample t-test.

The results showed that maladjusted children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self-control, social ability, problematic behaviors, and adjustment to child education faci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collaborative consulting program that comprises psychological, parenting, and educational approaches is effective in relieving the difficulties faced by maladjusted children, indicating that it may be applied as a useful alternative.

Keywords : maladjusted children, a collaborative consulting, intervention program, preschool adjustment

1. 서론

유아의 어린이집 첫 등원 연령은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의 확대와 취업모의 증가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2012년 28.3개월에서 2015년 26.5개월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유아교육기관의 이른 이용시작시기와 하루 이용시간이 증가되면서 유아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고, 부적응으로 인한 유아교육기관 퇴소 및 부적응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1][2].

부적응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문제행동과 자기조절의 어려움, 낮은 사회적 능력의 특성을 보이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 부적절감을 경험하게 되며, 학습기회를 상실할 수 있어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다양한 행동문제 및 학습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갖는다[3][4]. 따라서 유아의 부적응 문제는 유아기 시기만의 어려움이 아닌 이후 생애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의 부적응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부적응 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적 접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 오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적응 유아를 위한 놀이치료 활용 프로그램은 유아의 내재적·외재적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주고 유아의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5], 유아의 정서조절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효과가 있다[6]. 그리고 치료놀이 접근의 프로그램은 유아의 문제행동, 사회적 유능성[7]과 유아교육기관 적응력[8]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다. 또한 미술치료 접근의 프로그램은 유아의 문제행동, 공격성, 정서지능[9]과 사회성 및 또래유능성[10]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부적응 유아 지원을 위한 선행연구들은 유아에 제한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부적응 유아의 지원을 위해 교사[11]와 어머니[12]의 참여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의 부적응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신념,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어머니 요인과 교사 요인의 외적요인이 영향을 준다[13].

따라서 부적응 유아 지원을 위해 부모, 교사, 상담전문가와 컨설턴트의 협력이 기반이 된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이란 전문가가 내담자를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내담자의 중요한 인적 환경인 교사와 부모들에게 내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최은아와 고희선[14]은 부적응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전문가를 통한 부적응 유아의 심리적 지원, 어머니와 교사를 통한 양육 및 교육지원프로그

램의 개발과 그리고 각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및 참여자 간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협력적 컨설팅의 지원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에게 제시한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행동변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유아교육기관 부적응과 관련된 유아의 특성으로 먼저, 자기조절력을 들 수 있다. 자기조절력은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조절해 나가는 능력으로 높은 자기조절력은 보다 높은 사회적 적응을 예측한다. 그러나 자기조절력이 낮은 경우에는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욕구가 좌절될 때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 버린다[15]. 따라서 자기조절력이 낮은 유아는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아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또한 유아의 낮은 자기조절력은 공격성 및 충동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 유아의 또래 관계 및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에 영향을 준다[16]. 자기조절력은 유아기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자기조절력은 부적응 행동 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이 된다[16]. 그러나 부적응 유아의 증가현상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절력 향상을 통한 부적응 문제의 감소 효과를 보고한 연구는 초등학교[17]와 청소년[18]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어 부적응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유아가 환경에 적응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능력이란 개인의 환경적응, 인성, 대인관계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사회적 맥락에서의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적응적 행동 전략을 개발하게 하며, 타인에 대한 조망수용능력을 가지고 사고와 행동을 하게하며, 대인관계에서도 타인과의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19].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유아의 부적응과 상당히 밀접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기관 적응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20]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능력이 교육적 지원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19]는 점은 유아의 부적응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문제행동은 일반적으로 발달적 시기 또는 연령에 알맞은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역기능적인 행동의 특성을 말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문제행동의 증상을 보이는 유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 60%의 유아에게서 문제행동이 지속되다가 청소년기에 이르러 품행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21]. 그리고 유아의 문제행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11]으로써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유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제행동은 유아의 성별, 기질, 자아탄력성, 사회적 기술과 같은 개인내적 요인[22]과 양육환경으로서 어머니 변인과 교육환경으로서 교사 변인에 상호적 관계가 있다[11][13].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문제행동 증가와 관계가 있는데, 특히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13]. 그리고 교사의 부적응 유아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친밀한 관계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11]을 주며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기관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2]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에 근거

하여 볼 때 유아의 문제행동은 유아의 개인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어머니와 교사는 유아의 기관적응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이자 동시에 위험요인으로 기관적응에 중요한 맥락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부적응에는 유아의 자기조절력, 사회적 능력, 문제행동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개인내적 특성에도 부모, 교사와 같은 유아를 둘러싼 외적요인의 특성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부적응 유아 지원을 위한 선행연구는 주로 유아에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부적응 유아의 개인내적, 외적 요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자기조절력, 사회적 능력, 문제행동,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유아, 부모, 교사를 지원하는 방안 탐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네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 C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만 5세반에 재원중인 유아, 유아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로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특성상 유아교육기관, 가정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 선정에 위해 B시와 C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 유아교육기관에 연구 참여 기관 신청 안내 공지를 한 후 신청한 기관 중 4개의 기관을 임의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 위해 참여기관의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 절차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 선정에 위해 검사참여에 동의한 유아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류현강[23]의 부적응 행동 척도와 Behar와 Stringfield의 PBQ를 바탕으로 오재연이 수정·보완한 유아교육기관 생활적응행동 검사를 실시하였다[24]. 부적응 행동 척도와 유아교육기관 생활 적응 행동 검사 결과 상위 30% 이내인 유아들을 연구대상으로 1차 선별한 후 부모님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절차의 과정에서 치료사와 유아 2명으로 이뤄진 짝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어머니의 프로그램 참여의 불가사유 등으로 인해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연구대상 선정에 제외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부모님의 동의를 구한 유아 6명, 유아의 어머니와 교사 각 6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고, 실험에 참여는 불가하나 통제집단으로의 참여에 동의한 유아 6명, 유아의 어머니와 담임교사 각 6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 및 통제 집단의 유아 12명은 모두 만 5세반에 재원중인 유아로 집단의 성별구성은 실험집단 남아 5명, 여아 1명과 통제 집단 남아 4명, 여아 2명으

로 구성되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별검사 점수를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부적응 행동과 유아교육기관 생활적응의 점수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표 1] 실험 및 통제집단 유아의 선별검사 결과

[Table 1] Screening test results o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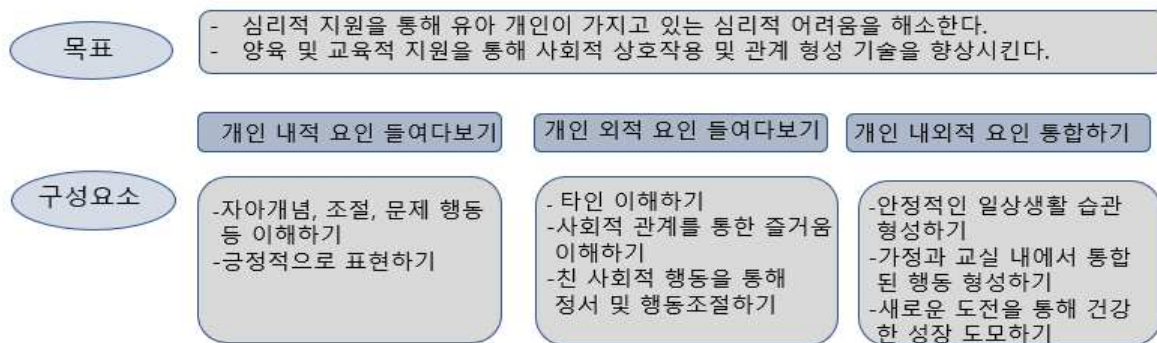
| 구분 | 집단 | N | M | SD | t | p | |
|-------------|-----|----|---|------|------|-------|------|
| 부적응행동 | 내재적 | 실험 | 6 | 50.7 | 2.8 | .582 | .574 |
| | | 통제 | 6 | 49.7 | 3.1 | | |
| 동행 | 외재적 | 실험 | 6 | 80.7 | 6.1 | -.555 | .593 |
| | | 통제 | 6 | 82.3 | 4.2 | | |
| 유아교육기관 생활적응 | | 실험 | 6 | 77.2 | 17.7 | .198 | .847 |
| | | 통제 | 6 | 75.3 | 14.2 | | |

2.2 연구도구

2.2.1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

가. 프로그램의 목적과 구성

본 프로그램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부적응으로 인해 어려움을 갖는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심리적 지원을 통한 유아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와 교육 및 양육적 지원을 통한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의 기술 향상에 목표를 둔다. 구성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적응 유아를 위한 심리적 지원프로그램, 양육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그림 1과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은 상담전문가를 통한 심리적 지원, 어머니를 통한 양육적 지원, 교사를 통한 교육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성요소

[Fig.1] Goals and components of Collaborative Consulting Program

둘째, 컨설턴트를 통해 각각 어머니와 교사에게 양육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적응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가정과 교실에서 유아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셋째, 컨설턴트는 상담전문가, 어머니, 교사와 각각 전화면담을 통해 참여자간에 상호협력을 연계하도록 하였다.

나. 프로그램 내용

- 유아 심리 지원 프로그램

유아지원 프로그램은 유아 개인의 심리 지원 프로그램, 어머니를 통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 교사를 통한 교육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담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총 15회기, 매 회기 각 50분(도입 10분, 중기 20분, 후기 10분), 2인 1조의 짝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었다. 총 15주의 프로그램은 단계(준비, 초기, 중기, 종결)에 따라 개인 내적 요인에서 외적 요인으로 그리고 개인 내·외적 요인을 통합하는 것으로 목표를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매 회기 목표를 수립하였다.

- 양육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부적응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장이자, 중요한 인적 환경인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머니와 담임교사가 유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양육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역시 유아 개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에 따라 단계별 및 회기별 목표를 수립하여 진행되었고, 매주 전달되는 프로그램은 가정과 교실에서 어머니와 교사가 자유로운 시간에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상담전문가, 컨설턴트와 피드백들 주고받는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2.2.2 효과 분석 도구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자기조절력, 사회적 기술, 내현적·외재적 문제행동,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에 주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먼저,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소영이 교사용으로 재구성한 유아용 자기조절력 평정도구를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98$)[25]. 자기조절력은 자기점검 요인의 자기평가 5문항, 자기결정 9문항, 자기통제 요인의 행동억제 10문항, 정서성 7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아주 그렇다'로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이진숙이 번안한 유아행동척도(The Preschool and Kindergarten Behavior Scale: PKBS)를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76-.93$)[26]. PKBS는 사회적 기술과 문제행동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 기술은 협력성 12문항, 상호작용 11문항, 독립성 1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문제행동은 외재적 행동문제(27문항)와 내적 행동문제(15문항)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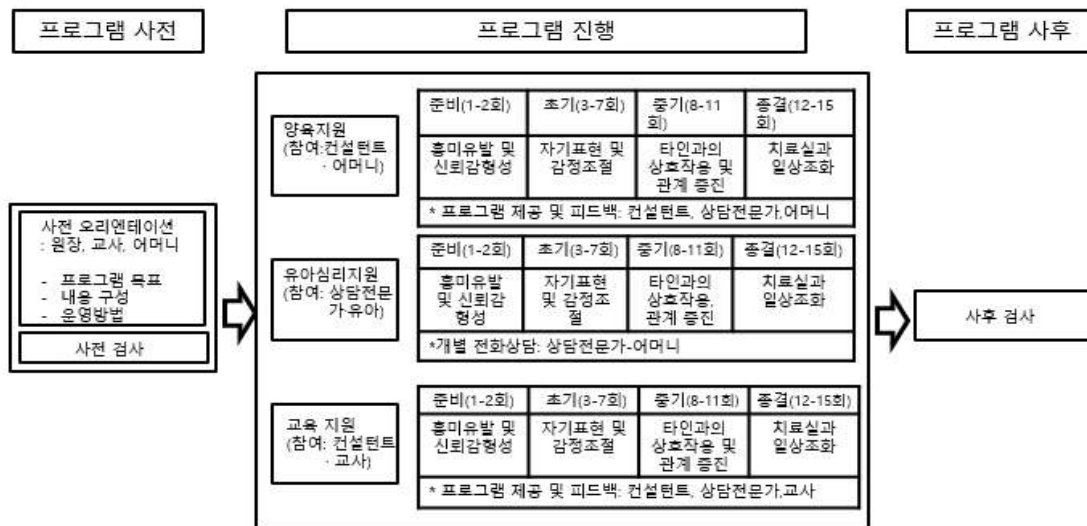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Jewsuwan, Luster와 Kostelnik가 개발한 유아교육기관 적응 검사(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0.85$)[27]. PAQ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 정도를 평가하는 설문지형 검사도구로서 5개의 하위범주(친사회성, 기관에서의 정서상태, 또래 간 적응, 자아상태, 일과에 대한 적응)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리고 5점 척도 설문지로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구성이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2.3 자료 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및 프로그램의 참여효과 분석을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집단간 동질성 검증을 위해 선별 검사 및 사전검사를 토대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의 효과분석을 위해 유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를 활용하여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2.2.4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오리엔테이션, 사전검사, 프로그램 실시, 사후 검사의 과정으로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운영순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절차
[Fig. 2] Operating process of Collaborative Consulting Program

1) 오리엔테이션

본 연구의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유아교육기관의 기관장, 교사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설명 및 검사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

다.

2) 사전 검사

선별검사에서 부적응행동 척도, 유아교육기관 생활적응행동 검사의 합산이 상위 30%이내인 유아 중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실험집단 유아와 검사실시에 동의한 통제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교사보고용 자기조절력 검사, 유아행동척도(PKBS), 유아교육기관 적응 검사(PAQ)이다. 교사보고용 체크리스트는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가 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3) 실험 처치: 부적응 유아를 위한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은 상담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컨설턴트의 지원을 통해 어머니와 교사가 각자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육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실시되었다. 유아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5주, 주 1회씩 매회 50분씩 총 15회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은 주로 오전 일과 중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상담전문가와 유아교육기관의 별도의 교실에서 짝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교사가 실시하는 양육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활동은 유아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시기에 교사가 일과 중 유아와 개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 어머니가 가정에서 활동하기에 편한 시간을 선택하여 매 주 진행되었다.

3) 사후 검사

부적응 유아를 위한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2016년 9월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했던 동일한 교사가 동일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자기조절력, 사회적 기술, 문제행동,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3.1.1 사전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검사 측정치들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 사전 동질성 검증

[Table 2 Homogeneity test

| 종속측정치 | 실험집단(N=6) | 통제집단(N=6) | t | |
|----------|------------|------------|-----------|------|
| 자기조절력 | 91.2(9.1) | 85.2(18.8) | .88 | |
| 사회적 능력 | 67.8(35.9) | 71.0(16.7) | -.19 | |
| 문제행동 | 내재적 행동 | 50.7(2.8) | 49.7(3.1) | .58 |
| | 외재적 행동 | 80.7(6.1) | 82.3(4.2) | -.55 |
| 유아교육기관적응 | 77.2(17.7) | 75.3(14.2) | .19 | |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t=0.88, p>.05$), 사회적 능력($t=-0.19, p>.05$), 내재적 문제행동($t=0.58, p>.05$), 외재적 문제행동($t=-0.55, p>.05$), 유아교육기관적응($t=0.19, p>.05$) 모든 사전측정치들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아들의 사전 부적응 행동과 관련된 자기조절력, 사회적 능력, 문제행동, 기관적응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1.2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두 집단의 사전·사후 자기조절력 변화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사전·사후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3] Pre and post test on children's self-control

| 하위변인 | 집단 | 사전검사 | 사후검사 | t |
|------|---------|------------|-------------|---------|
| | | M(SD) | M(SD) | |
| 자기평가 | 실험(N=6) | 15.2(3.1) | 21.7(1.0) | -4.54** |
| | 통제(N=6) | 15.8(4.3) | 15.8(2.6) | .0 |
| 자기결정 | 실험(N=6) | 25.3(4.7) | 29.3(8.5) | -1.22 |
| | 통제(N=6) | 24.2(9.7) | 25.0(8.6) | -.80 |
| 행동억제 | 실험(N=6) | 29.0(7.8) | 40.7(2.9) | -5.34** |
| | 통제(N=6) | 24.3(5.8) | 24.5(10.3) | -.07 |
| 정서성 | 실험(N=6) | 21.7(2.1) | 31.0(2.2) | -7.43** |
| | 통제(N=6) | 20.8(4.8) | 20.2(6.4) | .43 |
| 전체 | 실험(N=6) | 91.2(9.1) | 122.7(10.1) | -7.60** |
| | 통제(N=6) | 85.2(20.9) | 85.5(24.2) | -.07 |

** $p<.0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간 유아의 자기조절력 변화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 보면, 사전검사는 실험집단이 평균 91.2(SD=9.1), 통제집단이 평균 85.2(SD=20.9)이었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M=122.7, SD=10.1)이 통제집단(M=85.5, SD=24.2)보다 자기조절력이 높게 나타났다($t=-7.60, p<.01$). 구체적으로 하위변인에 대한 사전·사후 간 변화를 보면, 실험집단의 자기평가($t=-4.54, p<.01$), 행동억제($t=-5.34, p<.01$), 정서성($t=-7.43, p<.01$)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으나 자

기결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통제집단에서는 각 하위변인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유아 대상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평가, 행동억제, 정서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두 집단의 사전·사후 자기조절력 변화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사전·사후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4] Pre and post test on children's social skills

| 하위변인 | 집단 | 사전검사 | 사후검사 | t |
|------|---------|------------|------------|---------|
| | | M(SD) | M(SD) | |
| 협력성 | 실험(N=6) | 30.0(7.9) | 40.8(1.5) | -3.20* |
| | 통제(N=6) | 24.5(5.2) | 27.3(7.4) | -1.77 |
| 상호작용 | 실험(N=6) | 25.3(8.6) | 38.3(8.6) | -4.52** |
| | 통제(N=6) | 21.3(4.5) | 22.5(3.5) | -2.45 |
| 독립성 | 실험(N=6) | 24.0(6.7) | 31.2(3.9) | -1.92 |
| | 통제(N=6) | 25.2(8.9) | 26.2(8.9) | -.67 |
| 전체 | 실험(N=6) | 67.8(35.9) | 110.3(7.4) | -3.31* |
| | 통제(N=6) | 71.0(16.7) | 76.0(17.9) | -1.76 |

* $p < .05$, ** $p < .0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간 유아의 사회적 기술 변화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사전검사는 실험집단이 평균 67.8(SD=35.9), 통제집단이 평균 71.0(SD=16.7)이었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M=110.3, SD=7.4)이 통제집단(M=76.0, SD=17.9)보다 사회적 기술이 높게 변화하였다($t = -3.31, p < .05$). 구체적으로 하위변인에 대한 사전·사후 간 변화를 보면, 실험집단의 협력성($t = -3.20, p < .01$), 상호작용($t = -4.52,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으나 독립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통제집단에서는 각 하위변인별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유아대상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이 유아의 협력성, 상호작용, 독립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3.3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내·외재적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내재적 문제 행동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사전·사후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5] Pre and post test on children's internal problem behaviors

| 하위변인 | 집단 | 사전검사 | 사후검사 | t |
|--------|---------|-----------|-----------|----------|
| | | M(SD) | M(SD) | |
| 사회적 위축 | 실험(N=6) | 22.8(2.0) | 13.3(3.0) | 9.90*** |
| | 통제(N=6) | 22.8(2.6) | 22.5(2.3) | 1.00 |
| 행동불안 | 실험(N=6) | 27.8(1.7) | 12.7(3.2) | 12.40*** |
| | 통제(N=6) | 26.8(1.6) | 26.7(1.2) | .54 |
| 전체 | 실험(N=6) | 50.7(2.8) | 26.0(4.4) | 19.20*** |
| | 통제(N=6) | 49.7(3.1) | 49.2(3.1) | 1.17 |

*** $p < .001$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 변화에 대한 두 집단의 사전·사후 간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 보면, 사전검사는 실험집단이 평균 50.7(SD=2.8), 통제집단이 평균 49.7(SD=3.1)이었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M=26.0, SD=4.4)이 통제집단(M=49.2, SD=3.1)보다 내재적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t=19.2$, $p < .001$). 하위변인별 사전·사후의 변화를 보면, 실험집단의 사회적 위축($t=9.90$, $p < .001$), 행동불안($t=12.40$,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제집단에서는 각 하위변인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이는 유아대상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 행동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외재적 문제행동에 대한 전체 및 하위영역별 사전 사후 점수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사전·사후 유아의 외재적 문제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6] Pre and post test on children's external problem behaviors

| 하위변인 | 집단 | 사전검사 | 사후검사 | t |
|-------|---------|-----------|-----------|----------|
| | | M(SD) | M(SD) | |
| 자기중심성 | 실험(N=6) | 30.7(2.4) | 14.3(1.9) | 10.2*** |
| | 통제(N=6) | 30.8(2.1) | 29.8(3.3) | 1.17 |
| 행동과다 | 실험(N=6) | 25.3(3.9) | 15.8(1.7) | 7.40** |
| | 통제(N=6) | 26.3(2.2) | 25.3(1.9) | 2.24 |
| 공격성 | 실험(N=6) | 24.7(4.4) | 14.2(4.5) | 8.72** |
| | 통제(N=6) | 25.2(3.8) | 24.0(1.2) | 1.28 |
| 전체 | 실험(N=6) | 80.7(6.1) | 44.3(6.6) | 29.56*** |
| | 통제(N=6) | 82.3(4.2) | 79.2(3.8) | 2.26 |

** $p < .01$, *** $p < .001$

유아의 외재적 문제행동 변화에 대한 두 집단의 사전·사후 간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 보면, 사전검사는 실험집단이 평균 80.7(SD=6.1), 통제집단이 평균 82.3(SD=4.2)이었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M=44.3, SD=6.6)이 통제집단(M=79.2, SD=3.8)보다 외재적 문제행동수준이 낮게 나타났다($t=29.56$, $p < .001$). 하위변인들의 사전·사후 간 변화를 보면, 실험집단의 자기중심성 ($t=10.2$, $p < .001$), 행동과다($t=7.40$, $p < .01$), 공격성($t=8.72$, $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통제집단에서는 각 하위변인별 외재적 문제행동에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

었다. 이는 유아대상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중심성, 행동과다,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것을 의미한다.

3.4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효과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유아교육기관 적응 변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사전·사후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7] Pre and post test on children's school adaptation

| 하위변인 | 집단 | 사전검사 | 사후검사 | t |
|------|---------|------------|------------|---------|
| | | M(SD) | M(SD) | |
| 친사회성 | 실험(N=6) | 14.2(4.2) | 20.3(1.0) | -3.47* |
| | 통제(N=6) | 13.7(2.9) | 13.8(2.5) | -.35 |
| 정서상태 | 실험(N=6) | 11.7(3.1) | 19.2(.8) | -5.08** |
| | 통제(N=6) | 12.0(1.9) | 12.8(2.3) | -1.75 |
| 또래적응 | 실험(N=6) | 18.2(4.6) | 24.0(1.3) | -3.25* |
| | 통제(N=6) | 16.0(4.4) | 17.5(2.1) | -1.31 |
| 자아상태 | 실험(N=6) | 15.5(6.5) | 22.3(4.3) | -4.11** |
| | 통제(N=6) | 17.0(5.5) | 19.5(5.0) | -1.70 |
| 일과적응 | 실험(N=6) | 17.7(3.4) | 23.8(2.1) | -4.40** |
| | 통제(N=6) | 16.7(3.4) | 17.7(2.2) | -.94 |
| 전체 | 실험(N=6) | 77.1(17.7) | 109.7(6.4) | -4.71** |
| | 통제(N=6) | 75.3(14.2) | 81.3(9.7) | -2.24 |

* $p < .05$, ** $p < .01$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간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변화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사전검사는 실험집단이 평균 77.1(SD=17.7), 통제집단이 평균 75.3(SD=14.2)이었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M=109.7, SD=6.4)이 통제집단(M=81.3, SD=9.7)보다 교육기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t = -4.71, p < .01$). 하위변인 별 사전·사후 간 변화를 보면, 실험 집단의 친사회성($t = -3.47, p < 0.5$), 정서상태($t = -5.08, p < .01$), 또래적응($t = -3.25, p < 0.5$), 자아상태($t = -4.11, p < .01$), 일과적응($t = -4.40, p < .01$)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통제집단에서는 자아상태, 일과적응에서 차이가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유아대상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성, 정서상태, 또래적응, 자아상태, 일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사회적 기술, 문제행동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부적응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통제집단과 달리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자기조절력의 자기평가, 행동억제, 정서성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다시 말해,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의 일반생활지도를 경험한 통제집단 유아보다 자기조절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상담전문가의 개별치료, 어머니의 양육적 지원, 교사의 교육적 지원과 같은 포괄적 접근을 통해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능력을 개선시킨 고희선[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집단게임놀이를 통해 유아의 정서적 자기조절력과 적응행동[16]이 증진된다는 연구결과와 특히 협동게임일 때 정서조절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29]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심리치료에 기반한 상담전문가와 유아의 놀이, 유아간의 놀이를 통해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조절하면서 정서와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둘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게 하였으며 하위변인의 협력성,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도록 하였다. 이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치료와 함께 어머니의 양육역량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함께 지원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회복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8]. 그리고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유능성[30]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 교사, 상담전문가가 동시에 유아를 대상으로 지도하지 않았으나 부적응이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생태학적 환경체계의 영향으로 발생한다고 볼 때[11][13], 세 개의 환경체계가 개별적이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본 프로그램은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소집단 협동놀이는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놀이상황은 유아의 추론능력을 향상시킨다[31]. 이는 본 프로그램에서 유아들이 또래와 함께 동일한 목표와 규칙을 가진 놀이를 하면서 사회적 기술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약속과 질서를 지키며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연습을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짝으로 실행하는 본 연구의 놀이프로그램은 또래, 치료사와 같은 구성원과 함께 토의하고 합의하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방법, 조망수용능력,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32], 유아가 협력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도록 영향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로그램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점차 협력적 놀이형태가 증가되면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통제집단 유아들이 문제행동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실험집단 유아들의 내재적·외재적 문제행동 전체점수와 위축, 불안, 자기중심성, 행동과다, 공격성과 같은 모든 내재적·외재적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내재적·외재적 문제행동을 가진 유아들은 자신이 가진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하는 능력이 빈약하고[4], [17], 이는 다시 문제행동을 유발하면서 부적응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심리적·행동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전문가의 심리지원을 하는 동시에 교사의 공감적 태도[33], 의사소통능력[34], 문제행동지도[28] 역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유아의 문제행동 지원을 위해 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어머니와 교사를 통한 양육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는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실험집단에 참여한 유아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났던 행동문제가 감소하고 건강하게 교육기관에서 적응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유아의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자 보호요인인 자기조절력이 유아의 부적응과 문제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7]를 지지한다. 그리고 문제 및 갈등상황에서 감정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할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하면서 공격성, 위축, 불안 등 다양한 문제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유아들의 친사회성, 정서상태, 또래적응, 자아상태, 일과적응과 같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교사를 통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유아 생활지도 및 교육지원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돕기 위해 개별치료와 집단치료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짝으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이 효과적이었음을 알게 한다. 또한 놀이 활동이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지표라고 볼 때, 본 연구의 유아대상 심리지원프로그램에서 자기조절력과 협력성이 요구되는 놀이를 제공한 것이 부적응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친사회적 기술 습득 그리고 또래 관계 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실험집단 유아의 변화는 유아의 언어이자 학습도구인 놀이를 활용하고, 특히 치료적 효과가 있는 심리치료에 기반한 놀이였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 및 통제집단의 참여대상수가 제한적이라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보다 많은 연구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후속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의 각 변인에 따른 사전·사후 변화를 살펴보았으나 각 변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각 대상별 사전·사후 변화를 심도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종합적인 효과성 검토를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및 확산 방안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K .H. Oh, E. K. Na, and U.H. Park. Effects of Entry Age of Childcare Institutions and Hours of Usage Per Day on the Play Disturbance Behavior.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2015). Vol.9, No.1, pp.29-50.
- [2] S. H. Choi, H. J. Hwang. Relationship of the Quality of Teacher-Preschooler Interaction to the Maladjusted

- Behaviors of Preschoolers. *Journal of Children's Media*. Vol.10, No.3, pp.1-18.
- [3] Emond, A., Ormel, J., Veenstra, R., & Oldehinkel, A. J. Preschool behavioral and social-cognitive problem as predictor of (pre)adolescent disruptive behavior. *Child Psychiatry of Human Behavior*. (2007). Vol 38, No.3, pp.221-236.
- [4] Fernandez, M. T., & Marfo, K. "Enhancing Infant-Toddler adjustment during Transition to Child Care: A Screening and Intervention Tool for Practitioners." *Zero to Three*. (2005). Vol 25, No.6, pp.41-48.
- [5] S. Y. Yang and Y. J. Han. The Effects of Childcare Center Based Play Therapy on Infant's Problem Behaviors, Self-Concept, Social Interaction and Infant's Response Changes during Play Therapy. (2014). Vol 35, No.1, pp.95-117.
- [6] H. M. Jung. Study on Group Play Therapy Program and Preschoolers' Daily Stress • . Levels of Preschool Adaptation. (2010).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 [7] H. S. Lee. Effect of group theraplay applied to Montessori kindergarten onto infant's behavior problem, Self-concept and Social competence. (2005).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8] J. Huh. A Study of the Effect of Group Theraplay Programs for Preschoolers with Maladjustment on Their Adaptation to Preschool Educational Institutes. (2006). Graduate School of Jeonbuk University.
- [9] E. J. Kwon. Effects of art therapy program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aggressiveness of preschoolers. *Journal of Korea Welfare Practice*. (2012). Vol 4, No.1, pp.49-90.
- [10] M. J. Kim. The Effects of the Group Art Therapy Using Traditional Fairy Tales on the Sociality of Infants. (2015). Graduate School of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 [11] T. I. Kim. The Effects of Inadaptable Behavior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on Peer Sociability. (2013).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7. No. 5. pp.489-504.
- [12] K, S. Chung. and E. H. Lee. Small Group Filial Therapy Effectiveness on Improving Young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08). Vol. 29. No.1. pp.63-86.
- [13] Romano, E., Kohen, D., & Findlay, L. C. Association among child care, family and behavior outcomes in a nation-wide sample of preschool-age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10). Vol 34. No. 5, pp.427-440.
- [14] E. A. Choi and H. S. Koh. A Development Study on A Collaborative Consulting Program for Maladjusted Childre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 Vol. 18. No. 2. pp. 259-283.
- [15] Y. S. Kim. A Study of School Maladjustment of Youth and Its Overcome - Based on the theory of D. W. Winnicott -. *Theology and Praxis*. (2016). Vol. 52. pp. 319-338.
- [16] M. H. Kang and I. J. Park. The Effects of Group Game Play on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Adaptive Behaviors in Kindergarten.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2013). Vo.1. 16. No. 3. pp. 205-220.
- [17] H. J. Kim. The Effect of Orff Music Therapy on Sociality and Self-regulation of Maladjusted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2012). Vol. 15. pp. 73-86.
- [18] E. B. Lee. and J. K. Kim. The effects of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GRIP) on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and behavior problems of School Maladaptive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Gestalt Therapy*. (2013). Vol. 3. No. 1. pp.1-19.
- [19] E. M. Shin. Review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Kyung Bok College*. (2001). Vol. 5. pp.

329-345.

- [20] M. R. Chung. and H. S. Park. The Relationship Among Young Children's Self-Esteem, Social Confidence and Kindergarten Adjust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010). Vol. 14. No. 4. pp.143-168.
- [21] H. J. Moom. and H. J. Hong. The effect of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Eco-Children Education*. (2013). Vo. 12. No. 4. pp. 245-274.
- [22] J. Y. Park., S. U. Kang and K. S. Kwon. The Relations among Children's Temperament and Peer Competenc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0). Vol. 17. No. 4. pp. 139-162.
- [23] H. K. Ryu. Maternal, Infants' Temperament and Maladjustment. (2007),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24] Y. H. Kim. The Impact of Mother-Teacher Relationship on Child-Teacher Relationship and Child's Adaptation to Childcare Center. (2011).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25] S-Y. Lee. The Consistency Level of Plan, Practice, and Evaluation of Play according to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2007),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 [26] J. S. Lee. Preschool children's representation of attachment: Associations with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ompetence. (2001),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 [27] H. J. Kim.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Ego-Resilience, Self- Esteem, and School Adaptation in Early Childhood. (2014),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28] H. S. Koh. The Research on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Collaborative Consulting Program: Focusing on Maladjusted Childre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7). Vol. 7. No. 4. pp. 443-462.
- [29] Y. J. Lee, J. S. Lee. and E. W. Shin. The Effects of Picture story Book Based Group Game Play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of Mind, and Executive Func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5). Vo. 25. No. 3. pp. 119-147.
- [30] Junttila, N & Vauras, M. Latent profiles of parental self-efficacy and children's multisource-evaluated social competenc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14). Vol. 84. pp. 397-414.
- [31] Schaefer, C. E., & Reid, S. E. *Game play: Therapeutic use of childhood game*(2nd Ed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01).
- [32] Oliver, S., & Klugman, E. Making play happen: Ideas for mounting a campaign to increase healthy play in your community. *Exchange: The Early Childhood Leader's Magazine Since 1978..* (2007). Vol. 176, pp. 34-37.
- [33] Y. R. Ha. and E. K. Kim. Changes in Teachers' Understanding and Teachers' Action Through Participating In an Empathetic Teacher Training Program.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13). Vol. 17. No. 5. pp.267-289.
- [34] Schottelkorb, April A., & Ray, Dee C. ADHD Symptom Reduction in Elementary Students: A Single-Case Effectiveness Design.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009). Vol. 13. No. 1, pp. 11-22.